



제목	사랑 안에서 길을 잃어라: 이현주의 루미 잠언 읽기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산티
발행일	2005. 2. 5
저자	루미 이현주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176
ISBN 또는 ISSN	978-8991075177

**내용 요약**

본 책은 동화작가이자 목사인 저자가 13세기 터키의 신비주의 사상가이자 이슬람 신비주의 메블라나 종파의 창시자이며 시인 메블라나 제랄루딘 루미의 『마스나비』 1권과 2권에서 144편의 글을 선별하여 번역하고 저자 자신의 느낌과 해석을 덧붙여 만든 일종의 잠언집이다.

『마스나비』는 총 6권으로 된 대서사시로써,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과 시문학, 그리고 중세 문학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 “페르시아어로 된 코란”이라는 명성을 얻은 책으로써, 루미의 사상과 가르침, 삶의 진수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루미의 신, 연인, 스승과의 사랑, 영적 세계에 대한 갈구와 깨달음, 자연 속에서 얻는 깨달음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독자들이 루미의 세계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책의 뒷장에는 루미의 개인적인 삶과 그의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태생과 그가 받았던 교육, 그에게 참된 진리를 깨우치게 해준 샴즈와의 인연, 샴즈와 나눴던 영적 교감과 사랑 등 개인으로서의 루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작품들이 그 당시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